

이땅에서 '철학하기'의 슬픔과 분노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을 읽고

강신주 | 연세대 철학과 강사

젊은 철학자들이 한국철학을 이끌어 온 지적 사유를 굳이 논쟁으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겉으로는 철학의 핵심이 타자와의 대화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으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 오늘 우리 철학계가 논쟁부재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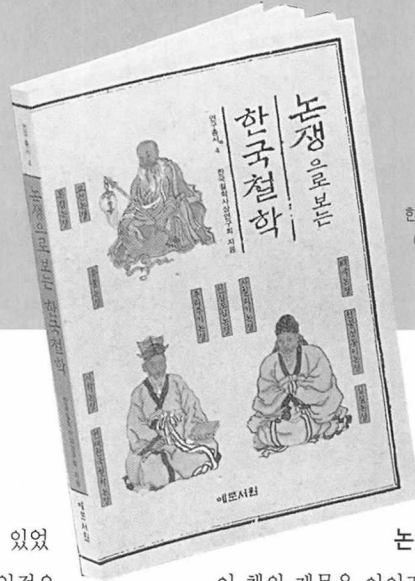
역사란 무엇인가? 아니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언제 역사에 대해 의식하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크로체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모든 역사는 현재의 우리 삶의 관점에서 그려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상을 뜻한다. 오히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역사에서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벗어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읽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분명히 달라진 것 같지만, 그 달라짐의 정체가 애매할 때 우리는 역사를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란 죽은 자에 대한 장례식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자리인 것 같지만, 장례식에 모인 우리들의 살아 있음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하다.

한국철학에 대한 반성과 사색의 산물

언제 한국철학이 시작됐는가?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왜냐하면 한국철학이라는 분류는 사후에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과 한민족의 발견(혹은 구성)이 먼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되물어야 문제의 핵심에 이르게 된다. 즉 한국철학을 한다는 자의식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조선왕조 때까지 승려들, 유학자들은 과연 고려철학을 혹

은 조선철학을 한다는 자의식이 있었는가? 그러나 자의식은 자기동일적으로 ‘나는 무엇이다’는 식으로 대두되지 않는 데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자의식은 ‘나는 그 것과는 달리 무엇이다’는 식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한국철학사상연구회, 예문서원)에서 젊은 논객들은 바로 이 ‘그 것과는 달리’를 강조하려고 한다. 우리가 보기도 이것이 바로 ‘논쟁’이 지닌 핵심이다. 이 점에서 논쟁은 타자와의 만남과 그것을 통한 자기 의식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흔히 한국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소하기도 한다. 한국철학이란 중국을 통해 불교, 유학 등을 수입한 역사와 마찬가지로 아닌가? 그러나 이런 냉소적인 반문은 ‘중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한반도에서는 왜 논쟁의 대상이 됐는가’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한국철학은 ‘그것과는 다른’ 무엇이다. 그래서 젊은 논객들은 한국철학이 당당히 한반도에서 자기의식적 철학함의 역사였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 입각해 젊은 논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따라 ‘그것과는 다른’, 즉 ‘논쟁’을 통해 한반도에 살아 있었던 역동적인 철학적 자의식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한국에서 철학함이라는 자의식의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예문서원/A5신/326면/10,000원

계보에 대한 젊은 논객들의 반성과 사색이 쌓여 이뤄졌다.

논쟁 부재의 현실

이 책의 제목은 아이러니컬하다. 이 책에 모여든 젊은 논객들은 죽은 자들의 사유를 논쟁으로 기억하고 싶어한다. 이런 무의식적 기억에 대한 욕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면적으로 그것은 철학함의 핵심이 타자와의 대화와 그것에 대한 자기의식에 있음을 통찰한 이들의 감각에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런 추모 행사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논쟁 부재’의 공간임을 확인하는 데 있다. 진정한 철학적 논쟁이 부재하는 공간에 던져져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슬픔과 분노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런 추모 행사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되돌리는 이들의 뒷모습에는 한반도에서 철학한다는 것의 비극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이 책의 한 논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철학’이니 ‘한국의 자생적 철학’이니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우리 현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한 철학을 전개하고, 그런 철학을 토론·경쟁·공유하는 철학자 사회가 있을 뿐이다. 그 사회는 한국에 뿌리를 두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322면)라고●